



# 불교가 살아야 세계도 국가도 개인도 산다

## 국경없는 전법, 세계화의 화두

한국불교는 그간 해외 포교의 끈목할 성과를 거두어 왔다. 미주·유럽 등지에 200여 한국 사찰이 세워졌고 한국을 찾아와 사발업의하고 수행하는 외국인 스님도 80명을 넘는다. 그러나 전법에 대한 원력만큼이

나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도 크다. 해외 전법을 담당할 사람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고, 조직적인 해외 포교 계획도 드물기 때문이다. 해외 포교 40년의 성과와 문제점을 점검해 본다.

### ☞ 해외로 뻗는 한국불교

한국불교가 '세계화'라는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다. 조계종에만 해도 정식으로 수계를 받은 외국인 스님이 비구(나)·사미(나)를 합해 8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80%는 송산 스님의 제자들. 1966년 일본에 흥법원을 설립하면서 해외 포교를 시작한 송산 스님은 전 세계 32개국에 120여 곳의 흥법원을 설립, 60여 명을 출가시켰다. 조계종에 승적이 등록되어 있는 스님만도 10여 명에 이른다.

지난 40년간 한국불교의 해외 진출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다. 64년 서경보 스님이 미국 버클리 대학 근처에 선원을 열면서 시작된 해외포교는 70년대 구산 스님과 송산 스님이 미국에 포교원을 개척하면서 본격화됐고, 현재 조계종에 소속된 150여 곳을 포함해 전 세계에 200여 개의 한국사찰이 건립돼 있다.

### ☞ 해외포교의 전환기

한국불교 세계화는 해외포교에 원력을 세운 스님이나 단체의 활약에 힘입은 바 크다. 송산 스님과 구산 스님 외에도 원명 스님이 대표적이다. 1989년 구소원을 시작으로 해외에 6개의 포교당을 운영하고 있는 원명 스님은 1997년 강화도에 연등국제선원을 건립해 본격적으로 외국인 스님들을 길러내고 있다. 한미음선원의 대행 스님 또한 미국, 독일 등 9개 지역의 해외 지원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그러나 몇몇 스님의 적극적 활동에 기대 온 해외 포교도 이제 전환기를 맞고 있다. 개인의 원력에 의존한 해외 포교만으론 진정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73년 문을 연 송광사 국제선원이 그것을 말해준다.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0여 명의 외국인 수행자가 몰려들었던 송광사 국제선원은 남다른 열의를 가졌던 구산 스님이 입적한 후 국제선원으로서의 위상이 많이 위축돼 있다. 관심 갖고 이끌 '어른'이 없는 탓이다.

해외에 건립된 한국 사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대부분 스님들 개인의 원력과 노력으로 세워진 한국 사찰은 현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에서의 사찰 운영은 의욕에 비해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스님들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 세계화를 위한 과제

대부분 전문가들이 종단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해외포교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김응철 교수는 "해외포교를 위해서

# 가르침 속 인류가 한가족 될때까지...

## 해외포교 40년, 성과와 비전

### 개인원력 한계...제도적 뒷받침 필요

### 한국불교 알릴 영문불서 인력양성 절실

는 한국불교의 의례나 수행·수행 체계 등을 이해할 수 있는 영문책자가 필수적이고 현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지만 개인 원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에는 힘든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다. 한국에 들어와 수행하고 있는 외국인 스님들이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도량의

확보나 제도적 지원도 종단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 조계종이 외국인 기초선원을 지정하고 교과안건 실시, 한국어 학습 프로그램, 영

문 교재 발간 등을 통해 외국인 스님들의 교육체계를 강화하고 나서는 것은 이 같은 필요성을 종단 스스로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포교 신설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한국불교 세계화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인 셈이다.

권형진 기자 jimny@buddhapia.com



☞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해서는 해외포교와 외국인 스님들의 국내 정착을 종단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 사진은 조계종에서 실시한 외국인 스님 집전 및 의식 교육 모습.

### 외국인스님 국내 수행처는?

외국인 스님들의 대다수는 송산 스님이 문을 연 서울 화계사 국제선원과 원명 스님이 건립한 강화 연등국제선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2001년부터 조계종의 외국인 기초선원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거 때마다 20여 명의 외국인 스님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두 곳은 행사교육(1년 과정)을 겸하

### 대부분 화계사·연등국제선원서

### 송광사 국제선원 한국어 가능 스님만

고 있는데 연등국제선원의 경우 사미(나)계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한국어 습득과 한문 교육을 받은 후 강원엔 입학하도록 하고 있다. 화계사 국제선원에서 비구(나)계를 받은 스님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불교를 알리는 경우와 국내에 남아 선방에서 수행하는 경우로 나뉜다. 2000년 총산 논산의 무상사 국

제선원도 송산 스님이 건립한 곳이다. 구산 스님이 1973년 시작한 송광사 국제선원은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기본 습의를 익힌 스님에 한해서만 입방을 허락하고 있다. 통도사, 대원사, 도선사, 금정암, 도선사, 광명선원 등에서도 수행하는 외국인 스님들이 있으며 강원에서 공부하는 스님도 있다.

# “한국 선불교, 세계화 확실한 힘”

## 미 육조사 주지 현웅스님의 전법비결

20여년 미국에서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현웅 스님은 미국 내에서도 '전국구 스님'으로 통한다. 시애틀(몬트선원)과 버클리(육조사), 두 곳에 사찰을 열고 있지만 등록된 신자 수는 전국적으로 3만여 명, 이 때문에 지역 별로 수련 센터를 만들어 순회 지도를 해야 한다.



것을 깨달았다. 그 나라를 이해하고 그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바닥부터 봐야 한다."

—실제로 언어 때문에 현지인 포교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한다.

"나도 처음에는 영어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몇 년 지나서는 법문과 신자 상담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게 됐다. 송산 스님은 문법과 어순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단어 나열식 서툰 영어로도 성공했다. 언어가 중요하긴 하지만 먼저 자기 자신이 수행에 철저해야 하고, 원력이 있어야 한다. 근본이 서 있지 않으면 아무리 영어를 잘 해도 통하지 않는다. 언어나 문화의 이해는 그 다음이다" —해외포교를 개인의 원력에만 의지

해외의 한국 사찰이 대부분 현지 교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등록 신자의 99%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도 눈길을 끈다.

해외포교를 하면서 한 법문과 기고, 시와 편지를 한데 묶은 <묻지 않는 질문>(민족사의 국내 출간을 계기로 최근 고국을 찾은 스님은 "선불교야말로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 자기수행 철저·언어장벽 극복이 관건

## 공부하며 실천하는 생활불교 강조

길"이라고 강조했다.

"현대 미국인들은 물질 속에서 메말라 가고 있는 정신을 찾기를 원한다. 티베트 불교나 일본 불교는 신앙불교나 문화적 측면으로 고착화돼 그럴 만한 생명력을 잃어버렸다. 반면 깨달음의 전통이 남아 있는 한국 불교는 철저하게 체험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힘이 있다."

그러나 해외 포교의 현실이 밝기만 한 것은 아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찰이 손에 꼽을 정도다. 스님은 "해외 포교에 나서는 스님들의 경우도 확실한 뜻과 원력을 지닌 분들이 드물고, 무엇보다 준비 안 된 스님들이 많기 때문이다"이라고 지적했다.

—준비라면 무엇을 말하는지?

"외국에 나가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된다는 것은 출가할 때만큼이나 큰 변화다. 인생의 행자 생활을 다시 한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도 5년 만에야 그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많다.

"선불교가 힘이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그런데 사회화 되어 있지 않다. '선' 따로 불교 따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불교를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원도의 교육이나 선방 스님들의 태도도 바뀌어야 한다. 스님들 스스로도 산철에는 적극적으로 교양을 쌓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송광사 1·2대 방장 구산(1909~1983) 스님의 제자인 현웅 스님이 해외 포교에 나선 것은 1984년. 송광사 포교당인 스위스 제네바 불승사로 갔다가 2년 뒤 미국 포교에 뛰어 들었다. 시애틀에 '돈오선원'을 개원한 데 이어 1990년 초 버클리에 '육조사'를 창건했다. 지금은 육조사 선원에서 서양인들에게 한국 선불교를 지도하고 있다. 육조사(510-486-1762)

권형진 기자

# 가족을 부처님처럼...



불기 2547년

부처님오신날

부산불교회관은 도심포교를 위해 계획 설계된 미래불교도량입니다

**부산불교회관**  
**여여선원 · 여여정사**  
**선원장 정여**  
**신도회장 변성창**

거사림회,청년회,여여회,자비회,  
선림회,다도회,합창단,복지회,금빛모임,  
푸른샘, 화요법회,수요법회,  
목요법회,금요법회

부산시 진구 양정 2동 157-1 부산불교회관 전화 051)853-5486~7

# 대한불교 종단진흥회

회 장 능허당 김혜정 (사)대한불교일승종 총무원장  
부 회 장 원 덕 성순경 통일불교 법사종 총무원장  
부 회 장 동 해 이송산 (사)대한불교해동종 총무원장  
운영위원장 수 봉 정희암 한국불교정토종 총무원장  
홍보위원장 손혜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사무총장 만 암 윤송정 (사)한국불교미륵종 총무원장  
회 원 송법장 대한불교삼보조계종  
송보인 대한불교신인종  
최법륜 (사)대한불교원융종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1-5번지 전화 02)3446-1819 팩스 02)511-2028